

어스름 어둠을 헤치고
아침이 밝아온다.
새 날의 태양이 잔잔한 바다의 물결을 헤치고
금빛으로 반짝거리다
저 멀리
홀로 새 날의 태양을 맞는 배사공.
배 한가득
우리들의 꿈과 희망을 싣고 노 저어간다.